

## 2011년도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악화

채원영 연구원

## ## 2011년 중 국내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의 당기순손실 금액은 1,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.0% 증가하였음.

- 생명보험업 해외점포의 당기순손실은 1,930만 달러로 전년대비 23.0% 확대되었는데, 이는 영업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비 증가로 보험영업비용이 전년대비 14.0% 증가하였기 때문임.
- 투자업 해외점포¹)의 당기순이익은 330만 달러로 전년대비 28.2% 증가하였음.
  - 위탁매매수수료, 부동산임대수익 등의 영업수익 증가폭(9.1%)이 영업비용 증가폭(1.9%)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나 본사위탁매매 중심의 영업으로 수익규모는 영세한 수준임.

〈표 1〉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손익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)

	구분	2010년(A)	2011년(B)	증감(C=B-A)	증감률(C/A)
생명 보험업	보험영업손익	△15.8	6.4	22.1	_
	보험료수익	56.8	89.1	32.3	56.8%
	보험영업비용 (사업비)	72.6 (42.5)	82.8 (54.0)	10.2 (11.5)	14.0% (27.2%)
	투자영업손익	12.4	12.3	△0.2	△1.3%
	책임준비금전입액	15.1	39.7	24.7	163.5%
	당기순손익(a)	△15.7	△19.3	△3.6	23.0 <sup>1)</sup> %
투자업 등	영업수익	12.0	13.1	1.1	9.1%
	영업비용	8.7	8.9	0.2	1.9%
	당기순손익(b)	2.6	3.3	0.7	28.2%
당기순손익 합계(a+b)		△13.1	△16.0	△2.9	22.0*%

주: 1)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경우로 손실 증가율을 의미함.

자료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.

<sup>1)</sup> 금융투자업 및 부동산임대업 점포.

- ## 2011년 말 기준 생명보험회사 전체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14.7% 증가한 4억 1,000만 달러, 자기자본은 1억 7,640만 달러(11.4% 감소), 부채는 2억 3,360만 달러(47.4% 증가) 수준임.
  - 누적손실 증가로 자기자본이 감소하였고, 총자산 대비 부채 비중(57.0%)이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중(43.0%)을 상회하고 있음.
    - 생명보험업 해외점포의 경우 보유계약 증가로 책임준비금은 54.7% 증가한 반면, 손실은 전년 대비 23.0% 확대되어 자기자본이 26.4% 감소하였음.

〈표 2〉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재무상황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분		2010년 12월 말(A)			2011년 12월 말(B)			증감(C=B−A) 및 증감률(C /A)		
		생보업	투자업등	합계	생보업	투자업등	합계	생보업	투자업등	합계
부채 · 자본	부채(a)	156.9	1.5	158.5 ⟨44.3⟩	231.8	1.8	233.6 ⟨57.0⟩	74.8 (47.7)	0.3 (19.8)	75.1 (47.4)
	책임준비금	67.9	0.0	67.9 〈19.0〉	105.1	0.0	105.1 ⟨25.6⟩	37.2 (54.7)	0.0	37.2 (54.7)
	자기자본(b)	98.1	101.0	199.1 ⟨55.7⟩	72.2	104.3	176.4 ⟨43.0⟩	$\triangle 25.9$ ( $\triangle 26.4$ )	3.2 (3.2)	$\triangle 22.7$ ( $\triangle 11.4$ )
총자산(a+b)		255.0	102.6	357.6	303.9	106.1	410.0	48.9 (19.2)	3.5 (3.4)	52.5 (14.7)

주: 〈 〉는 총자산대비 비중, ( )는 증감률.

자료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.

- ## 2011년 말 현재 국내 대형 3사가 5개국에 8개의 점포(현지법인)를 운영 중이며 2010년 12월말 대비점포수의 변동은 없음.
  - 회사별로는 대한생명(2), 삼성생명(5), 교보생명(1)이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는 미국 (3), 중국(2), 태국(1), 베트남(1), 영국(1)에 진출하였음.
  - 시장조사, 정보수집 등을 수행하는 주재사무소는 5개 생명보험회사가 6개국에 16개 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음.
- 금융감독원은 손익이 악화된 해외점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및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수익규모가 적은 투자업 점포의 현지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유할 방침임.

(금감원 보도자료 등, 4/3)